

신안군, 국제적 갯벌 블루카본 도시 '도약'

신안 갯벌 1천773km²...탄소 저장 흡수력 56조 가치 확인 매년 1cm 퇴적 가정 시 연간 탄소 흡수량 124만t 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56조원으로 평가돼 신안군이 국제적 블루카본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 갯벌 탄소 흡수력 규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유영한 국립광주대학교 교수, 신안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신안 갯벌의 탄소 흡수력과 생태적 가치를 논의

하고, 블루카본으로서의 전략적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는 신안 갯벌이 보유한 탄소 저장·흡수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해 탄소배출권 확보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갯벌 유형별로 탄소 저장량을 측정해 신안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연간 탄소 흡수량을 산정하고 갯벌 보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안군 중도 갯벌에서 토양 코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이 총 1천773km²에 이르며, 탄소 저장량은 약 13억t로 추산됐다. 또한 갯벌의 탄소 저장 가치를 평가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장

제적 가치를 추정해 결과, 갯벌 토심 40m를 기준으로 생태적 가치는 약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 유형별로는 빨갯벌(82.85%)이 주요 탄소 저장 기지로 총 12억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혼합갯벌과 모래갯벌도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평가됐다.

특히 신안 갯벌에 매년 1cm의 퇴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탄소 흡수량은 124만t에 달하며, 이를 생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98-141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돼 신안 갯벌의 보전·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안 갯벌의 탄소 흡수력과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계

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신안 갯벌을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 자원으로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갯벌을 IPCC 인정 블루카본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갯벌로 세계유산에 최초 등재된 와탄해사무국(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3국), 2019년 7월 세계자연유산(황해-보하이만 연안의 철새보호구)에 등재된 중국 옌청시와 함께 국제 협력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제 갯벌 블루카본 등재 심포지엄을 개최해 향후 IPCC 인정 블루카본 확대와 관련한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신안=양홍기자

목포시,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발전 임대 사업 중단 결정

"주민 동의 우선 원칙 따라 결정"

〈속보〉목포시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용궁배수지 내 태양광발전 부지 민간 임대사업을 결국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 소유 용궁배수지(용해동 281-52) 내 태양광발전 시설 민간 임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목포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부응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올해 초 용궁배수지 4만4천272㎡ 중 9천133㎡(20%)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도입을 추진했었다.

이에 지난 5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부지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정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 '태양광발전 시설 입지에 주민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면서 민간 임대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관 훼손, 환경오염, 빛 반사 등 우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지속돼 사업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중단으로 매년 3천7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에 투입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한편, 양왕산 태양광발전 반대위원회는 오는 12월8일까지 집회신고를 마치고, 지난 13일 목포시청 정문 앞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회에 나섰다.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사업자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양왕산 태양광 설치, 집회를 이어갔다. /목포=정해선 기자

무안군,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내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지정·비상대책본부 운영 등

무안군은 14일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을 선발하고 기존 산림사업장

관리요원과 함께 산불 대응 인력 30명을 기동단속반 5개 반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읍면에서는 상황근무조를 운영, 산불발생 징후를 관찰하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및 개별소각행위 금지

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집중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무안·목포·신안·진도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해 산불 진화 헬기를 운영, 대형산불 초동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산림청과 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올해 산불 발생 0건 목표를 도전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들도 산행 간 흡연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김장 걱정 마세요" 명품 해남배추 출하 눈앞

내달부터 겨울배추 본격 수확... "22일 이후 가격 안정·품질 ↑"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 해남의 배추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김장배추는 정식기 폭염으로 배추 육묘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식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가을철 폭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었으나 생육이 호전되면서 김장철 배추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해남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 2천250ha, 겨울배추 1천900ha로 지난해에 비해 가을배추는 줄고, 겨울배추는 늘었다.군은 전국 배추 재배량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2월부터는 겨울배추 수확에 돌입할 예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확되고 있는 배추는 대부분 절임배추로 가공하기 위해 출하된다. 최근에는 생배추 외에도 절임배추 가공이 대폭 늘고 있는 추세로, 생산량의 10%가량이 절임배추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배추는 타지역의 작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속이 짙 차고,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영양가가 풍부하다. 김치를 담그면 쉽게 물러지지 않고, 단맛이 나는 아삭한 식감으로 명품 배추로 불리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12일 문내면 일원 절임배추 생산 농가를 방문해 해

남배추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김장철에 대비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김장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시기가 고민된다면 11월22일 김치의 날 이후로 김장을 하면 가격도 적정하고, 품질도 가장 좋은 배추로 맛있는 김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명현관 해남군수가 문내면 절임배추 공장 방문해 절임배추 현황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완도군이 미래 수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수산벤처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열린 한국수산벤처대학 16·17기 수료식·18기 입학식 모습. (완도군 제공)

"수산업의 미래 이끌 인재 찾습니다"

완도군, 내달 19일까지 수산 벤처 과정 신입생 모집

완도군은 14일 "오는 12월19일까지 미래 수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 한국수산벤처대학 수산 벤처 과정 제19기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산벤처대학은 2007년 완도군, 전남도, 조선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해양수산 분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총 1천300명이 수료했으며, 수료생 중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하

장품을 개발한 박수미(취이노플렉스 대표), 최윤재 완도수산질병관리원 원장 등이 활동하며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10개월간 수산 정책 관련 실무 이론, 해양수산 컨설팅(수산 경영 및 마케팅, 창업, 시제품 제조),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현장 학습 등 벤처 인력 육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산 벤처 과정 수료 후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은 수산업 리더들이 참여해 전략적 경영 능력과 리더십, 글로벌 수산업 동향 등을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수산벤처대학 지원 자격은 거주지와 학력 제한이 없으며 만 65세 미만 수산업 종사자 및 예비 창업자로 수산 벤처에 관심이 있는 수산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원서는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자우편(jh88@chosun.ac.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입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062-608-5922) 또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061-550-5101)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윤보현기자

영광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료

농업발전 유공자 시상...지역농업 선도 역량 배양

영광군이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영광스포티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 주관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온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영광군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영광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영광군연합

회, 영광군4-H연합회·한국4-H영광군본부 회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단체간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역량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퓨전북너타(백수읍), 줌바댄스(영광읍), 순가락너타(염산면) 등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을 발표하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단체별 회원들이 재배한 우수 농산물과 1년 동안의 발전취를 전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농업발전 유공자, 농업인 대상, 유공 공무원 시상했으며 특히 2000 탄소 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결의문' 낭독으로 학습단체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쳤다.

또한 올해 처음 진행된 으뜸농산물 품평회를 통해 군 최고의 농산물을 선정, 한해 농사를 평가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동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장은 "이 자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농업발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광군 농업인 학습단체가 영광군의 농업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 지역 경제 활성화 '특독'

관광객 1.5배 ↑...32억 파급 효과

강진군이 피싱 마스터스 대회를 통해 어촌 경제를 해양관광까지 중심으로 전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마량항에서 열린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에서 혼다컵 감성돔 마스터스 챔피언 심과 APIS컵 두족류 선상부시 대회 파이널 라운드를 개최했다. 이번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는 총상금 2억원 규모

로 '전국 최초' 토너먼트 방식의 바다낚시 대회를 도입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시마노컵 두족류 대회부터 해마요팅컵, 성진마린 해양F RP컵 등을 포함한 여섯 차례의 대회를 거쳐 최종 결승이 열렸다.

초대 감성돔 마스터스 우승자는 장흥군의 김삼봉(63)씨로, 약 3kg을 낚아 3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김 씨는 시마노컵 파이널 라운드에서 3위를 기록한 후 최종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두족류 부문에서는 여수시

의 이재현(50)씨가 약 8kg을 낚으며 1천500만원의 상금을 획득하고 압도적 성과를 냈다.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는 강진군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바다낚시 어선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어촌 경제를 해양관광까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대회 전후로 강진군을 찾은 낚시객은 1.5배 증가해 10월 말까지 약 1만4천여 명이 방문, 17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록했다. 특히 마량면을 방문한 참가자와 가족, 지인들로 인해 1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였다.

/강진=정영록기자